

# 경북도, 400억 투입해 반도체 챔버 핵심부품 자립화 시동

챔버용 테스트베드 구축 조성  
현재 핵심부품 대외 의존도 90%  
K-반도체 밸류체인 거점 도약



경북도청.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마일 등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던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를 전폭 지원하며 'K-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반도체 챔버 핵심부품이란 반도체 챔버(제조 장비 내부)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정전적)하거나 플라즈마를 제어(오픈스링)하고 극한 공정 환경으로부터 장비를 보호(라이너)하는 핵심 소모품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2nm급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 도입에 따라 극저온·수소 플라

즈마 등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고부가 챔버 부품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일본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반도체 핵심 부품 개발 때 고가의 준양산급 장비 부족으로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북도는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구축과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용화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챔버용 3대 핵심 부품(정전적, 링, 라이너)은 대외 의존도가 90%를 웃돌고 있다.

도는 이 사업으로 개발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40% 이상 줄이고 개발 비용도 50% 이상 절감해 수입 대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달부터 5년간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50, 도비 75, 시비 175억원)을 투입해 구미국가1산업단

지 내(구미시 공단동 방림부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지역의 소재 부품 제조 기술과 수도권외의 칩 양산을 잇는 'K-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주관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연면적 3000㎡(클린룸 500㎡ 포함)의 반도체 챔버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시제품 제조공정 지원, 제조공정 분석 평가 기술 지원을 위한 36종의 장비를 구축한다. 공동 참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지원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경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중심지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

#### 부산시사 제8~10권 발간

부산시는 교육 분야 등 지역의 변천사를 수록한 '부산시사' 제8~10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사 편찬 사업은 1991년 완간된 부산시사(전4권, 1989~1991년)를 30여년 만에 증보·수정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부산역사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통사 4권과 분류사 18권을 2029년까지 연간 3권씩 발간할 예정이다.

부산시사는 현대까지 부산역사 흐름을 정리한 통사편 4권(2024년)과 정치사, 경제사, 사회복지·보건·의료사를 정리한 분류사 3권(2025년) 간행에 이어 8~10권에서는 교육사, 언론·통신사, 대외교류사를 정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유망 스타트업 투자·성장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3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BOUNCE PIE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투자 라운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창업 7년 미만 투자 유치 희망 스타트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직접투자 검토, 파트너 투자사와의 1대1 미팅 및 멘토링, 투자사 미팅 데이, FINAL DEMODA Y 참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익산시

#### 신청사 내 시민 위한 공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 내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시설은 다목적홀, 시민동아리방, 야외공연장 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4만 234㎡) 규모로 건립된 익산시 신청사는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시민 편의 기능을 더한 '복합 행정공간'을 지향해 왔다.

/익산(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 경북도

#### K-글로벌 수출 리더기업 육성

경북도는 '2026 K-글로벌 수출 리더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발굴해 글로벌 역량 진단부터 현지 비즈니스 구축,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까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에 본사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140억원 초과, 직·간접 수출 실적 300만 달러 이상 기업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세 방식 유지

특별시세 83.1%, 구세 16.9% 비율  
올해 예상액 광주 2.5조, 전남 4.2조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27개 시·구·군의 지방세 징수는 통합 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심,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세 83.1%·구세 16.9%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 특별시 출범 후 27개 시·구·군의 지방세는 통합 전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9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주시는 이중에서 비중이 큰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 사업자 분을 걷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세입 총 예상액은 광주시 2조

970억원(83.1%), 5개 자치구 4252억원(16.9%) 등 모두 2조5222억원 규모다.

전남은 상황이 다르다. 광주시가 걷고 있는 지방세 대부분을 22개 시·군이 자체 징수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세는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 뿐이다.

총 예상액은 4조2299억원으로, 도세 2조4800억원(61.7%), 22개 시·군 1조5429억원(39.3%)이다.

광주는 광역단체, 전남은 기초단체 중심으로 세입과 세입이 집중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통합 후 특별시장이 걷는 특별시세는 기존 광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4조5770억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통합 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시세와 도세를 합칠 경우 산술적 세수는 늘지만, 세목이 기존대로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제인 양도소득세 전액, 또 법인세의 50%, 부가세 추가 5% 지방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영덕군서 조선 궁중문화 체험하세요”

내일부터 ‘궁, 바퀴를 달다’ 진행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덕군민이 궁중연향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전통 공연까지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무대가 마련된다.

경북 영덕이 조선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무대로 변신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19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궁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궁중문화의 정취를 나눈다.

‘궁, 바퀴를 달다’는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궁궐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영덕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행사는 궁중연향의 흐름을 바탕으로 꾸민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궁중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뒤 궁중정재와 지역의 소리 공연, 사자춤 다양한 전통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영덕에서 궁궐 문화와 지역 공연예술이 어우러지는 이색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행사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회차별 150명씩 모두 3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에게는 궁중병과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영덕 행사가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영주시가 산행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 소백산 철쭉 개화... 봄 관광객 겨냥 축제

오는 23~24일 ‘영주 소백산철쭉제’

영주시가 소백산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봄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소백산 일원과 풍기인삼문화산업공원에서 ‘2026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열고 자연경관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참여형 관광 축제를 운영한다.

올해 철쭉제는 기존 산행 위주 행사에

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일반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꾸며진다. 영주시는 ‘등산화 없이도 즐기는 철쭉축제’를 핵심 콘셉트로 내세우고 소백산과 풍기 행사장을 연계한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소백산 권역에서는 죽죽제와 죽령옛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 걷기 행사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 홍성군, 숨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지원

‘그냥드림’ 사업... 물품·복지 제공

홍성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18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이 시급한 위기 상황의 주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간단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즉시 물품을 지

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3~5종이 제공된다.

운영 장소는 홍성종합터미널 인근 보훈회관 1층에 위치한 ‘홍성군 푸드마켓·뱅크(홍성읍 의사로72번길 41-8)’이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특히 ‘그냥드림’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이 공공 복지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